

광주시, ‘공급 과잉’ 한방·요양병원 병상 줄인다

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5월부터 지역맞춤 시행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외 신·증설 제한

광주시가 과도한 요양·한방 병원의 병상을 지역 수요에 맞게 줄이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 확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기본시책'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다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기본시책 따른 관리대상인

일반병상과 요양 병상에 추가로 한방 병상까지 포함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 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고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광주지역 한방 병상 수는 2023년 6월 기준 5835 병상으로, 전국 한방 병상 수(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광주시의 일반병상은 1만3682개로 인구 1000명 대비수로는 9.6개로 달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광주지역 병상 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도심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만든다

남구 신희천마을·북구·동구 등서 실증 추진

광주시가 지역에 최적화된 분산에너지(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인근에서 생산·공급하는 것) 모델을 구축해 새로운 에너지시대 선도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너지기업, 에너지기업, 협력기관 등과 '광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배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 송전설비 비용,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상형 한전 KDN 사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유병천 ㈜레플라스 대표, 전석 ㈜그리다에너지 대표, 김찬영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 등 6개 기관·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조성, 분산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현, 분산에너지 실

증 및 신기술 개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동구, 남구, 북구에서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도심형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실증을 추진한다.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특화지역을 전력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1MW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RE100 수요기업과 전력거래를 실증하고 RE100 메가스테이션(정부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구축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남구는 신희천마을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마을주민 간 전력거래와 인근 공동주택 내 전 기차충전기에 전력공급을 추진한다. 북구는 1MW 태양광발전 전력을 10MWh 전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인근 기업과 거래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I 골든타임’ 광주가 열겠다”

강기정 시장, 국회서 기자회견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인공지능 강국 3대 방향’ 제시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속도'와 '집적'에 기반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GPU 1만 개 즉각 확보', '국가AI데이터센터 100% 활용',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조인철·전진숙 의원이 함께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충분한 경험 축적돼 있고, 풍부한 전력과 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까지 가진 유일한 도시"라면서 "광주는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열기 위한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GPU 1만 개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계엄·탄핵으로 제때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진 GPU 자원을 절반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는 등 그동안 순항해 온 광주의 AX실증 2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안도걸·전진숙 의원과 함께 AI관련 예산확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강 시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강 시장은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가AI컴퓨팅

센터 구축 장소는 광주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는 2만9000여㎡(9000평)의 부지와 충분한 전력,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까지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한편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실증장비 구축, AI사관학교 운영, 퓨리오사 등 276개 인공지능기업 집적, 1만1000여 명의 AI인재 배출, 전국 900여개 기업에 AI 연구개발(R&D) 2000여건 지원 등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AI 대변인’ 채용...보도자료 초안 작성

‘AI당지기’ 이어 ‘AI직원 2호’

광주시가 행정예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디지털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시가 AI직원 1호 'AI 당지기'에 이은 2호로 'AI 대변인'을 도입했다.

대시민 소통의 핵심 창구인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하는 'AI 대변인'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AI 대변인'은 챗 지피티(Chat GPT)를 기반으로 광주시 보도자료 서식, 작성 기준, 표현 가이드를 반영해 핵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을 생성한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담당부서 공무원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챗 지피티(Chat GP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것이다.

광주시는 유형별 보도자료 서식을 갖춰 다양한 보도자료 작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고 맞춤형 자동 수정 기능도 제공해 보도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AI직원 2호 'AI 대변



인'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의 품질과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행정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특·광역시 최초로 특별채용한 'AI 당지기'를 도입,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한 성과를 내고 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전화를 응대(음성·보이스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등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시, 고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광주시는 실·유기동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 광주시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인원 12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견사 오전·오후 각 3명, 묘사 오전·오후 각 3명 등 하루 총 12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매주 토요일은 보호동물의 개체 관리와 질병감염 예방 등을 위해 자체 환경정화 및 방역의 날로 운영해 봉사활동이 제한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보호동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환경정화봉사, 건강관리, 사람과의 교감을 위한 산책봉사, 미용봉사 등의 역할을 한다.

봉사활동 신청은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동물보호센터에는 지난달 기준 유기견 250여마리, 유기묘 150여마리가 보호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